

완주군, 강의 가치발견 가동

만경강포럼 시작 · 2018년까지 릴레이 포럼 진행

완주군이 전국 최초 '강의 가치발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군은 11일 한국강의 날 전북완주대회와 연계해 삼례예술촌 세미나실에서 전국의 생태활동가, NGO, 공무원, 주민 등 150명이 모인 가운데 완주군 생태정책 선언 및 제1회 만경강 생태포럼을 열었다.

제1회 만경강 생태포럼은 만경강의 생태, 역사, 문화, 마을과 삶을 주제로 만경강의 재발견과 가치의 중요성을 찾아가는 자리로 진행됐다.

안도현 우석대 명예총장과 교수(시민)는 만경강을 주제로 한 시낭송과 완주군 생태정책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지속적인 만경강 생태포럼'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어 진행된 '만경강 생태포럼'에서는 만경강의 자원을 이해하고 만경강 생태포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북보전환경연구원 김진태 원장은 '만경강의 자원 이

해'라는 주제로 만경강의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경강에 서식하는 곤충, 동물, 수생식물, 조류, 생태자원의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만경강 생태포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만경강의 자연환경 특성과 생태적 조영 △농업과 연계된 만경강 스토리텔링 개발 △만경강의 역사문화 자원과 마을 재생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생태보존 활동 등을 주제로 포럼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만경강 생태포럼 협의체를 구축하고 △자연생태부와 △역사문화부와 △마을재생부와 △교육홍보부와 4개 분과를 구성해 만경강 포럼으로 제안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은 만경강 생태보전 및 육성조례 제정,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박기준 팀장은 △익산청의 치수관리사업의 중요성과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재난 예방의 필요성, 우석대학교 황태규 교수는 △만경강 100리길 생태관광 활성화 필요성, 김상식 이화박사(고산)는 △민간중심의 강보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보전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 개발을 강조하였고, 전북 강살리기추진단 오문태 상임이사는 △생태보전 지구 지정 △만경강 생태자원 분포 등 학술적 연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동안 완주군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강을 다스리는 사업(治水)에 힘을 쏟아왔지만, 이제는 '치수' 못지않게 '만경강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계하여 '만경강 생태포럼'을 민선 6기 후반기 생태정책으로 2018년까지 릴레이 포럼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경북 청령군 우포를 파 오기태도 김성진 박사,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및 전국의 NGO단체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진행될 만경강 생태포럼에 '모두 함께 파트너'로 동참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적상 아로니아 판로 찾았다

반딧불산채농장과 판매계약 체결

무주군은 적상면에서 생산한 아로니아 50톤을 부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인 (주)반딧불산채농장(대표 유상근)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로니아 작목반(회장 윤병성)과 (주)반딧불산채농장이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일반수매가보다 300원 비싼 4,300원(1kg)에 거래가 성사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흥규 적상면장은 "작년보다 일반수매단가가 떨어져 관내 아로니아 농가들의 시름이 깊었다"며 "농가들과 함께 발로 뛰며 최적의 판로를 찾게 돼 기쁘고 무엇보다도 무주군 관내업체로 납품을 하게 돼 유통 절차나 비용 또한 절감하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현재 무주군 적상면 아로니아 작목



반에 가입된 농가는 모두 86농가로 연간 총 70여 톤의 아로니아를 생산되고 있으며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장미과에 속하는 베리류의 일종인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아사이베리의 3배, 블루베리의 5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60배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함유량도 높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읍 소재지 간선도로망 확충

중로2-3 도시계획도로 완공

진안군은 진안읍소재지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로터리~(구)학천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중로2-3)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도로(중로2-3) 구간은 당초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로 차량소통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구간으로 이번에 조성된 도시계획도로는 진안로터리와 (구)학천주차장을 연결하는 연장 1km에 폭 15m 3차선 도로로 조성됐으며 총 사업비 130억원이 투입됐다.

군에 따르면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진안IC에서 진안로터리카



지, 진안에서 적상 간 확·포장도로 등으로 이번에 조성된 도시계획도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과 인도를 설치해 야간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삼지공원도 조성하여 아름답고 가보고 싶은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폭염피해 수목 비상 관수

가로수 · 도시숲 조성지 주변 3000여 그루에

완주군이 최근 고온건조에 따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목 비상관수에 나섰다.

군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뭄에 의한 수목고사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급수차량, 산발화차량 등 가용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관수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심어 뿌리 활착이 미흡하고 수세가 약한 수목을 대상으로 물주머니 800여 개를 설치(점적관수)

하고, 가로수, 도시숲 조성지 등에 심은 산딸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왕벚나무 등 3,000여 그루의 나무들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우식 산림축산과장은 "이번 폭염과 가뭄이 충분한 강우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조경업체 등 민간업체와 협력해 폭염에 따른 수목피해 확산을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한우, 전국지방신문협회 인정 '최우수'

한우 시식행사 관람객 호응 수도권 소비자 신뢰도 제고

전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주최 측과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던 "장수한우"는 참관객과 기자단이 뽑은 "우수제품 브랜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수군 명품특산물 "장수한우"는 돋보이는 행사 부스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다양한부위의 한우 및 한우식품의 시식행사로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주최 측이 마련한 부대행사인 주부요리경연대회에 장수한우를 협찬하여, 장수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졌으며, 행사장에서 펼쳐진 즉석 흡소평에도 참가하여 장수한우 선물세트를 즉석 경매하는 등 수도권 소비자를 겨냥한 다양한 홍보와 판촉활동을 펼쳤다.

특히 30여 명의 장수군 한우농가 대표들이 함께한 한우농가 판매협력 행사에서는 "내가 키운 장수한우"라고 관람객들을 향해 외치며 판촉활동에 나서

장수한우 브랜드에 대한 수도권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장수군 관계자는 금번 행사와 같이 앞으로도 장수한우농가와 장수한우지방공사, 장수군이 협력하여



최고의 장수한우 브랜드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행사참여를 주관한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성영수 사장은 "장수한우를 대한민국 대표 정장한우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홍보마케팅활동으로 장수한우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수도권 소비자를 늘려감으로써 유통을 확대하고 장수한우의 브랜드파워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화상담부
063-430-2951

15일 무주 안성면민의 날 행사

제43회 무주군 안성면민의 날 행사가 오는 15일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안성면 청년회가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오전 11시부터 기념행사를 비롯해 안성면 8개리 대항 체육경기(배구, 축구, 계주,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등)와 민민 노래자랑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성규 안성면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기에 천마의 고장 안성면이 있는 것"이라며, "단합된 모습으로 안성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의 기반이 되고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의 자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성면민의 날에는 이경원 씨(34세, 천마니 대표)와 박창순 씨(54세)가 선정됐다. 안성면에 따르면 산업근로자에 선정된 이경원 씨는 천마를 주 원료로 하는 제품을 개발해 무주군 대표 특산품인 천마의 명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효향장에 선정된 박창순 씨는 치매로 몸이 불편한 시모를 봉양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어 면민의 장에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읍 농식품부장관배 전국 승마대회 열린다

제1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가 장수읍마장(장수군 천천면 소재)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대회(마장미술/장애물)와 전문체육대회(장애물/복합마술 경기)로 오는 12일부터 15일, 23일부터 26일까지 각각 치러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말의 고장으로의 장수군의 입지를 다지고 지속적인 대화유치와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운영으로 엘리트 승마와 대중 승마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승마장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수읍마장은 부지면적 166,314㎡에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238칸의 마방과 888석의 관람석이 갖춰져 있으며 그동안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춘계·추계 전국승마대회, 전국국산마 승마대회 등 각종 국내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마이산 고추시장 14일 개장

진안군은 본격적인 고추 출하시기를 맞이하여 고품질의 우수한 고추를 직거래할 수 있는 '진안고원 마이산고추시장'을 오는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안 장날인 4일, 9일에 흥삼한방센터 주차장에서 개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추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몽골텐트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통제 요원을 배치 등 시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

특히 올해는 자매결연지 고추판매 및 체험행사 등을 통해 도시 소비자가 고추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추 시장 개장시간을 9시로 변경 추진한다고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식초 · 소스류 제조과정 교육생 모집

완주군이 식초 · 소스류 제조과정 교육생 30여명을 모집한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채소 및 곡류 등을 활용하여 식초 제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식초를 활용한 소스류 제조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실제적인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0여회에 걸쳐 실시된다.

선발조건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발효 식초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생은 1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c.wa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